오늘의 焦点

尿素의 國際時勢形成에 起爆劑

=포-란드, 루-마니아의 輸出減退說=

事実이면 価格改善의 転機이룰듯

昨年 下半期에 접어들면서 FOB $90 (袋物) 안팎 水準까지 暴落했던 尿素의 国際時勢는 今年에 접어들면서 漸次 改善되어 FOB 120 ~ $130線 가까운 水準까지 上昇하였으나 最近에 이르러는 더以上의 上昇勢를 찾아볼 수 없는 状況下에서 保合状態를 維持하고 있어 이러한 傾向이 앞으로도 継続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이러한 保合相을 脫皮하고 더 오를것인지? 国内外 肥料業界의 至大한 関心事가 되고 있다.

이러한 尿素의 国際時勢展望에 対해 一般的으로 業界에서는 尿素의 国際需給関係가 根本的으로 供給過剰状態에 있다는 事実을 前提로 西欧 및 日本등 尿素大量供給国에서 大幅的인 生産調整을 하고 있다해도 現水準에서의 継続的인 価格上昇은 期待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우기 主要供給国에서 大幅的인 減産을 하고 있는 反面 新興 生産国들이 登場하여 自給率을 높이고 있을뿐 아니라 輸出戰列에 끼어들어 国際需給関係는 如前히 緩和状態를 持続하고 있다는 事実을 그 背景으로 説明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状況속에서도 最近 期待를 걸어 볼만한 情報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新興供給国인 포-란드와 루-마니아 등 東欧勢가 内需의 増大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海外輸出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美国도 大型 푸란트가 稼動하드라도 現在로서는 輸出余力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事実이다.

東欧勢는 몇年째 해마다 供給余力이 増大되어 輸出의 一大 勢力을 形成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꺾인다면 国際需給에 큰 刺戟을 주게될지도 모른다.

그렇게되면 保合相을 보이고 있는 尿素의 国際価格도 조금씩 오름세를 보여 正常化로 向할 可能性이 없지도 않은 것이다.

오늘날의 尿素価格은 資源国은 次置하고라도 大部分의 供給国들이 赤字輸出을 하고 있어 이러한 非正常的인 状況이 길게 갈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東欧勢의 輸出減退가 事実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起爆剤가 되어 尿素의 国際価格은 지금부터 다시 改善의 길을 찾아 正常化 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